



제주 화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내실을 다져온 원로·중견작가들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나아가 제주미술의 역사와 발전방향을 조망하는 제주도립미술관의 '제주 작가 마음'전이 올해도 이어진다.

지난해 한국화가 강등인과 도예가 허민자 초대전으로 시작된 '제주 작가 마음'전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초대 작가는 서양화가이자 판화가인 박성진과 조각가 임춘배다. 이들은 30년 이상 변함없는 창작활동으로 자신만의 예술세계를 구축해왔다.

올해 '제주 작가 마음'전은 '박성진:사람, 자연, 제주와의 동행'과 '임춘배:삶을 조각하다'로 구성됐다.

‘...제주와의 동행’ 박성진·‘삶을 조각하다’ 임춘배 제주도립미술관 기획전시실 10일부터 4월23일까지

기획전시실1에서 열리는 박성진 초대전에선 한지와 캔버스에 안료와 아크릴 물감을 사용해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인물과 자연을 형상화하는 작가의 회화세계를 마주할 수 있다.

기획전시실2에선 폭넓은 매체를 활용하면서 구조화된 조형 양식에 구애 없이 구상 인체 조각부터 추상 조각, 오브제 등 임춘배 조각가의 다양한 작업세계가 소개된다.

박성진 작가는 대구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서양화와 판화를 전공했다. 1995년부터 제주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과 교수로 27년간 재직했으며, 1994년 한국현대 판화가협회 공모전 우수상, 1999년 제9회 투글라 국제초상그래픽&드로잉비엔날레 대상을 수상했다.

임춘배 작가는 제주에서 태어나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조각을 전공했다. 1991년부터 31년 동안 제주교육대학교와 제주대 교육대학 교수로 재직했다. 2012년 '대한민국 미술인상'을 수상했으며,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 제주도립미술관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제주미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원로·중견작가들의 삶과 작품세계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제주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전시기간은 10일부터 4월 23일까지다. 오로지기자



지난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장면. 강희갑 작가 제공

오페라 '순이삼촌' 제주 이어 8월 부산 무대 경기·서울 이어 전국으로 확장성 넓혀가

오는 4월 7~8일 제주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의 올해 부산 공연이 확정됐다. 제주에서 2회 공연 후 8월 18일 부산 문화회관에서 1회 공연을 갖는다.

현기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오페라 '순이삼촌'은 지난 2020년 제주에서 첫선을 보인 후 2021년 제주와 경기아트센터에서 재연한 데 이어 지난해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이뤄졌다. 올해는 부산 무대에도 오르며 경기, 서울에 이어 전국으로 확장성을 넓히는 의미가 있다. 올해 공연 4년째를 맞는 '순이삼

촌'은 제주에서 처음 유료공연으로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이다.

티켓 예약은 9일 오후 2시부터 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연시간은 7일은 오후 7시 30분, 8일은 오후 3시부터다.

한편 올해 공연은 연출자와 주역이 바뀌었다. 다수의 오페라를 연출하고, 2020년부터 '순이삼촌' 무대감독으로 참여했던 이민수 연출자가 새로 선임됐고, 주역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소프라노 정승연·이경진 씨가 순이삼촌 역을 맡는다. 오로지기자 eioh@halla.com

새롭게 들여다보는 이중섭·김창열 예술혼

소장품 기획·특별전 잇달아 신 소장품 이중섭 친필편지 최초의 물방울 작품 등 선배

김창열미술관과 이중섭미술관이 올해 소장품 기획전·특별전을 잇달아 열며 작가의 예술혼을 재조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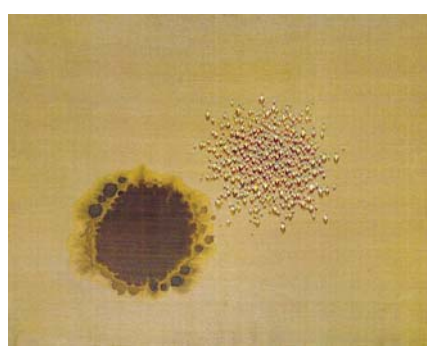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은 최근 2·3전시실에서 '무슈 구뜨 도(Monsieur goutte d'eau) 김창열'을, 1전시실에서 '치유의 혼'이란 이름을 달고 소장품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무슈 구뜨 도'는 한국어로 물방울 선생을 의미하며, 파리 체류시기부터 진행한 작가의 독창적인 물

방울 작품세계를 지칭한다.

김창열의 예술세계를 대표하는 물방울 작업 전반을 회고하는 이 전시는 오는 7월 2일까지 이어진다. 전시장에선 물방울 작업의 전조를 보여주는 '현상(1971)'부터 최초의 물방울 작품 '밤에 일어난 일(1972)', 그리고 물방울과 얼룩의 대비를 보여주는 1980년대 대표적인 물방울 작업과 19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작업한 '회귀' 연작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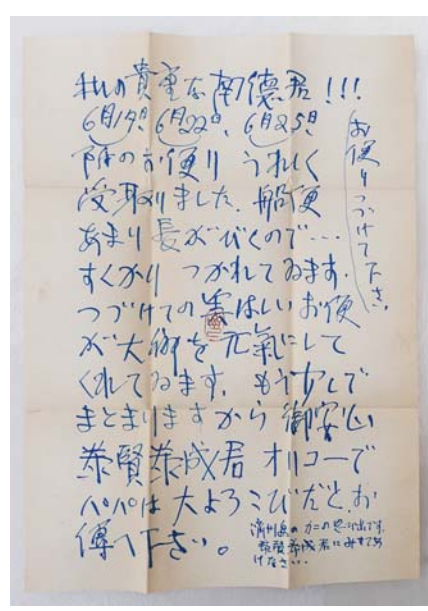
지난 7일부터 시작된 또 다른 소장품 기획전 '치유의 혼'은 6·25전쟁을 겪은 이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행위로서의 물방울 작업을 조명한다. 전시장에 화가의 초기 영포르멜 회화인 '제사'를 비롯해 소장작품 11점이 내걸렸다. 전시기



김창열 작 '물방울'

간은 7월 9일까지다.

이중섭미술관은 1층 상설전시실에서 올해 특별전 1부 전시로 '들소처럼'을 기획해 관람객을 맞고 있다. 오는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에선 지난해 신 소장품인 이중섭의 친필 편지 2점과 미술관 소장 이중섭의 원화 등 20점을 마주할 수 있다. 오로지기자



지난해 이중섭미술관이 수집한 이중섭 친필편지.

끝부분에 '제주도의 게에 대한 추억이오. 태현이와 태성이에게 보여주시오.'라고 쓰인 한 점의 친필 편지에 이중섭이 서귀포 시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또 한 점엔 이중섭 부인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로지기자

돌문화공원서 전통문화체험 이달 21일부터 11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돌문화공원은 오는 21일부터 11월까지 공원 내 제주전통초가 마을에서 도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제주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석공예 명장과 함께 제주돌하르방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석공예체험, 제주전통 살레(찬장) 제작에 참여해보는 목공예 체험과 설문대할망웃만들기 및 감물염색체험을 비롯해 신서란을 활용한 공예체험, 죽공예체험, 우영갯 놀이체험 등이 진행된다.

관람객은 누구나 무료 체험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 또는 사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원 누리집 참고.

돌불축제장에 '책 읽는 버스' 제주에총은 탐라문화제 홍보

제주시 우당도서관이 제주돌불축제장에서 '책 읽는 버스'를 운영한다. 도서관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축제장을 찾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그림책으로 보는 우리 제주의 전통문화와 함께해요! 책 읽는 버스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2023 제주시 올해의 책' 홍보와 현장 시민 투표도 진행한다.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축제장에 오는 10월 열리는 '제6회 탐라문화제 홍보관'을 운영(9~12일)한다. 올해 주제인 '제주의 할망'과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올해 탐라문화제 관련 설문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2억원 기획보증보험 가입 양국정부인허가조건

제주항공으로 떠나는 6월황금연휴 클락전세기

제주⇄필리핀(클락&마닐라) 3박5일

클락골프	클락&마닐라 관광	클락항공권
159만원 (54H/4조이상 단독)	125만원 (미취학아동 : 95만)	78만원 (한정판매)

06. 02(금) ~ 06.06(화) 출국 22:00-00:30
귀국 02:00-06:30

니하오여행사 064-722-6638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료, 한국어가이드,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그린피/54H, 캐디피&카트피등
불포함사항 : 가이드&기사입(\$30), 클럽식, 캐디팁(18홀/\$2) 전세기의 경우 양국(국토교통부)의 허가에 따라 기재된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